

최근 10년간 대한치과보존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향 분석

김기옥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ABSTRACT

ANALYSIS OF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NSERVATIVE DENTISTRY DURING THE LAST TEN YEARS

Ki-Ok Kim

Department of Dentistry, College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To understand the recent characteristics of the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nservative Dentistry(JKACD), All the papers in the JKACD of 1992 to 2001 were analyzed. A total of 513 paper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its type, field and subject of the study, school and the number of authors, references, and written languag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paper, 506(98.6%) were original articles, 3(0.6%) were review articles, and 4(0.8%) were case reports.
2. Annual proportion of papers in the field of operative dentistry was similar to that of endodontics.
3. In the field of operative dentistry, esthetic restorative materials and bonding to tooth constituted major subjects of the studies. In the field of endodontics, pulp biology was prominent and canal shaping, endodontic microbiology and canal obturation were steadily reported.
4. According to author's school, similar number of papers were published in the field of operative dentistry and endodontics in general. However, some schools showed preponderances.
5. Most studies were done by two or more authors. Studies published by two authors were most.
6. Fifty(9.7%) papers were done in collaboration with workers of the other field.
7. Average number of references cited in the papers was 41.2, including domestic references of 1.8. 40.7% of the papers was shown to cite no domestic papers at all.
8. Twenty-eight(5.5%) papers were written in English, with increasing ratio.

Key words : Analysis of pap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nservative Dentistry (JKACD), operative dentistry, endodontics, author, reference

I. 서론

대한치과보존학회는 1959년 6월 27일 창립된 이래, 지난 43년간 국내외적으로 치과보존학에 관한 많은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1975년부터는 소속 학회지로 대한치과보존학회지를 발간해오고 있다. 대한치과보존학회지 창간 첫해인 1975년에는 1회 발간에 총 8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으며, 이후 1970년대에는 해마다 10편 이내의 논문을 수록해오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는 20편 내외의 논문을 수록해 왔다. 1990년대에 와서는 발표된 논문 편수도 크게 늘어 1995년 이후에는 한해 50 내지 60편의 논문이 계속 발표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학회지가 크게 발전하였다. 본 학회지는 2000년 하반기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등록이 되어 계속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차후 등재학술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학문분야와 마찬가지로¹⁾ 치과보존학 영역의 논문들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연구

주제 및 방법 등에 있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보존학 분야 연구의 최근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예상해 보는데 도움을 주고자, 최근 10년간 대한치과보존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소기의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에 발표하는 바이다.

II. 연구자료 및 방법

1. 재 료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최근 10년간 발행된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8책²⁻²⁹⁾에 게재된 총 513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방 법

1) 논문의 종류별 분포

논문의 종류는 대한치과보존학회지의 투고규정에 나타나 있는 원저, 중설, 그리고 증례보고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2) 연구영역별 분포

논문의 영역은 보존수복학과 근관치료학으로 나누어 영역별 연도별 논문편수를 조사하여 전체 논문에서 각 영역이 차지하는 빈도를 분석하였다.

3) 연구주제별 분포

보존수복학 영역의 논문은 2001년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 발간한 "치과보존학"³⁰⁾을 근거로 주제에 따라 치아경조직 결손, 치수보호, 아말감 수복, 구조 수복, 치질과의 접착, 심

미성 수복재, 도재 수복, 치아변색 및 표백술로 분류하였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근관치료학 영역의 논문은 1996년 대한근관치료학회가 발행한 "근관치료학"³¹⁾을 근거로 주제에 따라 치수생물학, 근관성형, 근관 세척 및 투약, 근관미생물학, 근관충전, 외상, 외과적 근관 치료, 근관치료후 수복으로 나누었고 그 외의 것은 기타로 분류하였다(Table 1).

각 영역에서 조사된 주제별 논문분포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치과보존학의 연구 주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4) 연구자의 분석

(1) 발표된 논문의 주저자의 소속을 조사하여 11개 치과대학별로 나누었고, 그 외의 소속으로 발표된 논문들은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각 소속별로 보존수복학과 근관치료학 영역의 논문이 차지하는 빈도를 조사하였다.

(2) 각 논문의 저자수를 조사하여 단독논문인 경우와 2인, 3인, 4인, 그리고 5인 이상의 공동저자에 의해 발표된 논문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3) 공동저자의 소속을 분석하여 타 분야와의 공동연구 빈도를 파악하였다.

5) 참고문헌의 분석

각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조사하여 인용된 참고문헌의 수와 국내 참고문헌이 인용된 빈도를 분석하였다.

6) 영어논문의 빈도분석

논문이 작성된 언어를 한국어 및 영어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papers according to subjects

Operative Dentistry	Endodontics
Hard tissue defect	Pulp biology
Pulp protection	Canal shaping
Amalgam restoration	Canal irrigation & medication
Cast restoration	Endodontic microbiology
Bonding to tooth	Canal obturation
Esthetic restorative materials	Trauma
Porcelain restoration	Surgical endodontics
Discoloration & Bleaching	Restoration of endodontically treated tooth
Others	Others

Ⅲ. 결 과

1. 논문의 종류별 분포

논문의 종류에 따라 원저, 종설, 그리고 증례보고로 구분하였을 때, 종설이 3편(0.6%), 증례보고가 4편(0.8%)이었고 나머지 506편이 원저로 전체 논문중 98.6%를 차지하였다(Table 2).

2. 연구영역별 분포

논문은 총 513편으로 보존수복학 영역의 논문이 273편(53.2%), 근관치료학 영역의 논문이 240편(46.8%)으로 나타났다(Table 3). 각 년도별 보존수복학 영역과 근관치료학 영역의 비율은 1992년에는 48.5%와 51.5%, 1993년에는 71.8%와 28.2%, 1994년에는 64.1%와 35.9%, 1995년에는 55.9%와 44.1%, 1996년에는 46%와 54%

였으며 1997년에는 47.5%와 52.5%, 1998년에는 55.9%와 44.1%, 1999년에는 47%와 53%, 2000년에는 각 50%, 그리고 2001년에는 53.1%와 46.9%로 나타나, 년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두 영역의 논문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3. 연구주제별 분포

1) 보존수복학 영역

보존수복학 영역의 논문 273편의 주제별 분포는 심미수복재에 관한 논문이 101편(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치질접착에 관한 논문이 77편(28.2%)으로 나타났다. 아말감 수복의 경우에는 1998년까지는 매년 1~4편이 발표되었으나 1999년 이후에는 발표된 논문이 없었다. 그리고 주조수복과 치수보호에 관한 논문이 각각 7편과 8편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Fig. 2).

Table 2. Number of papers according to type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Total
Original Articles	33	39	39	58	50	61	59	64	57	46	506
Review Articles	0	0	0	1	0	0	0	2	0	0	3
Case Reports	0	0	0	0	0	0	0	0	1	3	4
Total	33	39	39	59	59	61	59	66	58	49	513

Table 3. Number of papers according to the publication year

	Operative Dentistry(%)	Endodontics (%)	Total
1992	16 (48.5)	17 (51.5)	33
1993	28 (71.8)	11 (28.2)	39
1994	25 (64.1)	14 (35.9)	39
1995	33 (55.9)	26 (44.1)	59
1996	23 (46.0)	27 (54.0)	50
1997	29 (47.5)	32 (52.5)	61
1998	33 (55.9)	26 (44.1)	59
1999	31 (47.0)	35 (53.0)	66
2000	29 (50.0)	29 (50.0)	58
2001	26 (53.1)	23 (46.9)	49
Total	273 (53.2)	240 (46.8)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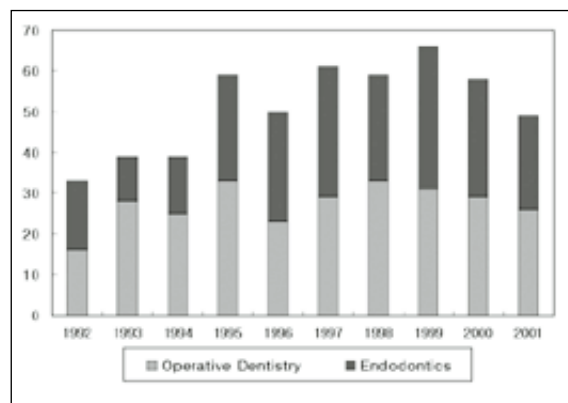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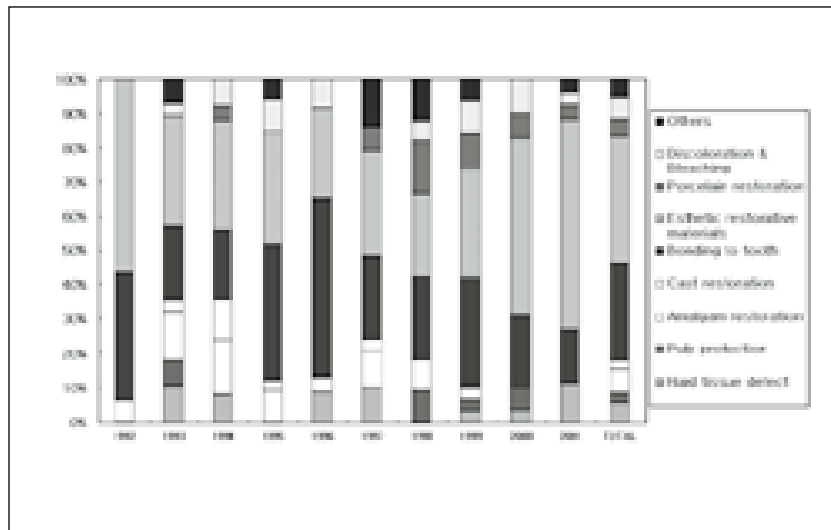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of papers according to the publication year.

Table 4. Number of papers according to the subject on operative dentistry in each year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total
Hard tissue defect	0	3	2	0	2	3	0	1	1	3	15
Pulp protection	0	2	0	0	0	0	3	1	2	0	8
Amalgam restoration	1	4	4	3	1	3	3	0	0	0	19
Cast restoration	0	1	3	1	0	1	0	1	0	0	7
Bonding to tooth	6	6	5	13	12	7	8	10	6	4	77
Esthetic restorative materials	9	9	8	11	6	9	8	10	15	16	101
Porcelain restoration	0	0	1	0	0	2	5	3	2	1	14
Discoloration & Bleaching	0	1	2	3	2	0	2	3	3	1	17
Others	0	2	0	2	0	4	4	2	0	1	15
Total	16	28	25	33	23	29	33	31	29	26	273

**Fig. 2.** Distribution of papers according to the subject on operative dentistry.

2) 근관치료학 영역

근관치료학 영역의 논문 240편의 주제별 분포는 치수생물학이 59편(24.6%)로 가장 많았으며 근관성형이 45편(18.8%), 근관미생물학에 관한 것이 41편(17.1%), 근관충전이 39편(16.3%)으로 나타났으며, 외상에 관한 논문은 1997년부터 발표되었으며 근관치료후 수복에 관한 것은 1994년, 1996년 및 1997년에는 발표된 논문이 있었으나 그 외의 연도에는 발표논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Fig. 3).

4. 연구자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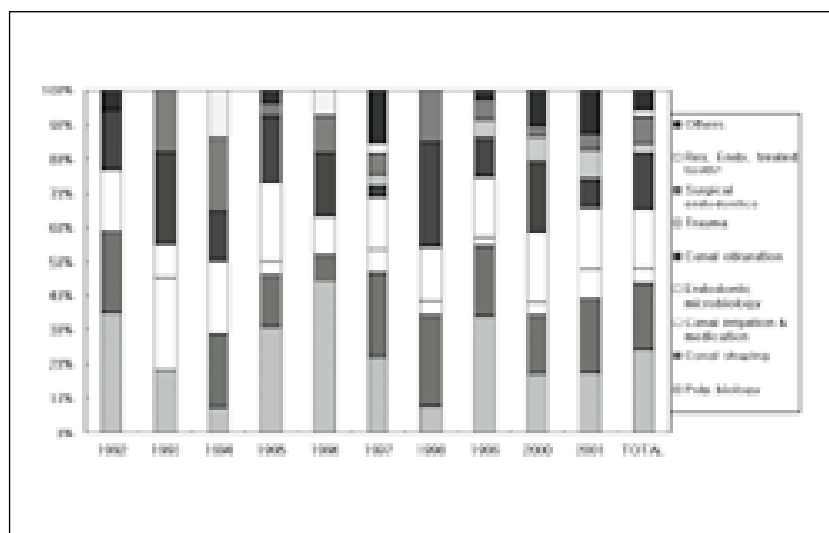
1) 주저자의 소속

발표된 논문을 주저자의 소속별로 분류했을 때 총 513편의 논문중 강릉대학교에서 2편(0.4%), 경북대학교에서 35편(6.8%), 경희대학교에서 60편(11.7%), 단국대학교에서 46편(9.0%), 부산대학교에서 18편(3.5%), 서울대학교에서 130편(25.3%), 연세대학교에서 61편(11.7%), 원광대학교에서 41편(8.0%), 전남대학교에서 19편(3.5%), 전북대학교에서 35편(6.8%), 조선대학교에서 46편(9.0%)을

Table 5. Number of papers according to the subject on Endodontics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total
Pulp biology	6	2	1	8	12	7	2	12	5	4	59
Canal shaping	4	0	3	4	2	8	7	7	5	5	45
Canal irrigation&medication	0	3	0	1	0	2	1	1	1	2	11
Endodontic microbiology	3	1	3	6	3	5	4	6	6	4	41
Canal obturation	3	32	2	5	5	1	8	4	6	2	39
Trauma	0	0	0	0	0	1	0	2	2	2	7
Surgical endodontics	0	2	3	1	3	2	4	2	1	1	19
Res. Endo. treated tooth*	0	0	2	0	2	1	0	0	0	0	5
Others	1	0	0	1	0	5	0	1	3	3	14
Total	17	11	14	26	27	32	26	35	29	23	240

* Restoration of endodontically treated tooth



* Restoration of endodontically treated tooth

Fig. 3. Distribution of papers according to subject on Endodon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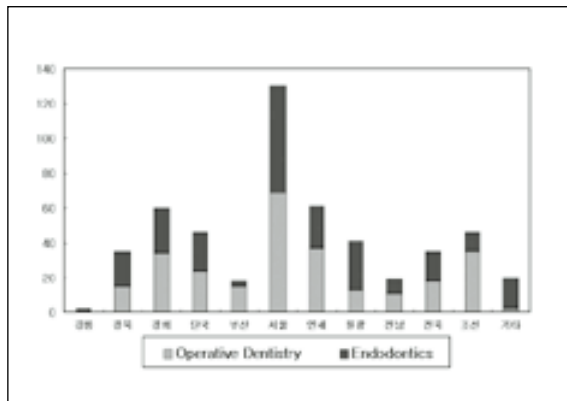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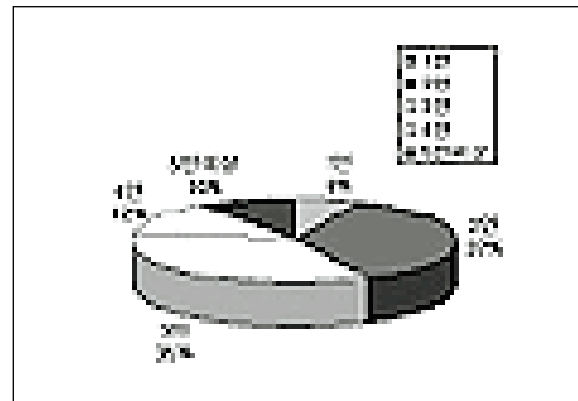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한편 주저자의 소속별 논문영역의 분포는 전체적으로 보존수복학 및 근관치료학 영역 논문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보존수복학 또는 근관치료학의 한 영역에 편중된 논문을 발표하는 학교도 있었다. 주저자의 소속이 치과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발표된 20편의 논문중 18편(90%)이 근관치료학영역의 논문으로 근관치료학 논문이 보존수복학 논문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

2) 저자의 수에 따른 분포

발표된 논문의 저자수는 2인인 경우가 186편(3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인인 경우가 179편(34.9%), 4인인 경우가 63편(12.3%), 그리고 5인 이상인 경우가 52편(10.1%)이었으며 단독저자인 경우는 33편(6.4%)으로 나타났다(Fig. 5).

Table 6. Number of papers according to main author's school

	Operative dentistry(%)	Endodontics(%)	total (100%)
Kangnung University	0 (0)	2 (100)	2 (100%)
Kyungpook University	15 (42.9)	20 (57.1)	35 (100%)
Kyunghee University	34 (56.7)	26 (43.3)	60 (100%)
Dankook University	24 (52.2)	22 (47.8)	46 (100%)
Pusan University	15 (83.3)	3 (16.7)	18 (100%)
Seoul University	69 (53.1)	61 (46.9)	130 (100%)
Yonsei University	37 (60.7)	24 (39.3)	61 (100%)
Wonkwang University	13 (31.7)	28 68.3)	41 (100%)
Chonnam University	11 (57.9)	8 (42.1)	19 (100%)
Chonbuk University	18 (51.4)	17 (48.6)	35 (100%)
Chosun University	35 (76.1)	11 (23.9)	46 (100%)
Others	2 (10)	18 (90)	20 (100%)
Total	273 (53.2%)	240 (46.8%)	513 (100%)

**Fig. 4.** Distribution of papers according to main author's school.**Fig. 5.** Proportion of papers according to number of authors.**Table 7.** Number of papers according to co-work with other major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Total
co-work with other major	6	2	3	5	3	7	3	11	3	7	50
total	33	39	39	59	59	61	59	66	58	49	513

3) 타 분야와의 공동연구 빈도

발표된 논문중에서 보존학 이외의 타 전공과의 공동연구로 발표된 논문은 50편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7).

5. 참고문헌 분석

연구대상기간중 발표된 총 513편의 논문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은 총 21160편으로 논문당 평균 41.2편이 인용되었

Table 8. Analysis of references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Total
No. of papers	33	39	39	59	50	61	59	66	58	49	513
Total No. of references	1542	1667	1644	2426	2238	2417	2375	2736	2370	1745	21160
Total No. of domestic references	77	53	63	156	105	98	94	132	49	75	902
Average No. of references	46.7	42.7	42.2	41.1	44.8	39.6	40.3	41.5	40.9	35.6	41.2
Average No. of domestic references	2.3	1.4	1.6	2.6	2.1	1.6	1.6	2	0.8	1.5	1.8
No. of papers without domestic references	9	18	17	20	19	29	23	27	24	23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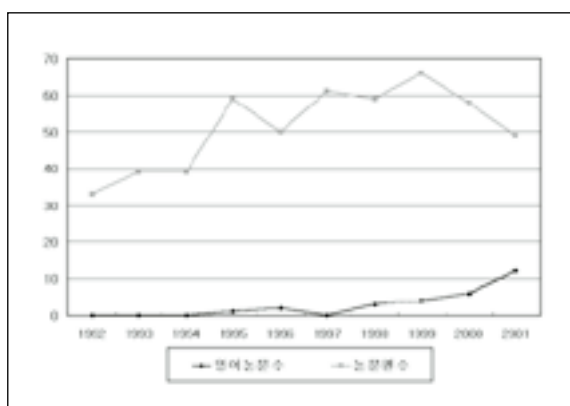


Fig. 9. Distribution of papers written by English.

으며, 전체 논문에서 인용된 국내참고문헌은 902편으로 평균 1.8편이 인용되었고 인용된 참고문헌중 국내참고문헌의 비율은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표된 총 513편의 논문중에서 국내참고문헌을 인용한 경우가 304편 (59.3%), 국내문헌을 전혀 인용하지 않은 경우가 209편 (40.7%)으로 나타났다(Table 8).

6. 영어논문의 비율

발표된 513편의 논문중 영어로 기술된 논문은 28편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로 쓰여진 논문은 1995년에 처음으로 1편(1.7%)이 발표된 이래 1996년에 2편(4.0%), 1998년에 3편(5.1%), 1999년에 4편(6.1%), 2000년에 6편(10.3%)이 발표되었고 2001년에는 전체 논문 49편중에서 12편(24.5%)이 영어로 작성

되어 발표되어 해가 감에 따라 영어논문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Fig. 9).

IV. 고 찰

대한치과보존학회지는 1975년 창간된 이래 년 1회 발간되다가 1986년부터 년 2회 발간으로 늘어났다. 1999년과 2000년에는 년 4회 발간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년 6회 발간으로 증간되었고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학술지로서 계속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재단 색인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기간으로 정한 1992년에서 2001년까지 대한치과보존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은 총 513편이었는데 논문의 종류별 분포에서 종설이 3편, 증례보고가 4편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506편의 논문이 원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학술대회초록이나 전공의 증례보고의 초록이 대한치과보존학회지에 수록된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한치과보존학회지 투고규정에 의하면 논문의 종류를 원저, 증례보고, 그리고 종설로 다양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행된 학회지에는 종설과 증례보고가 많이 포함되지 못한 경향을 보였다. 학회지가 년 6회로 발행횟수가 늘어난 바 논문의 종류도 다양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영역별 분포에서 각 년도별 비교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두 영역의 논문이 동등한 비율로 발표되었다. 보존수복학 영역의 논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할 때 1998년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 편찬위원을 구성하여 2001년 출간된 "치과보존학"의 각 장(chapter)을 근거로 하여 각 논문이 해당하는 영역을 예비조사한 후 비교적 해당 빈

도가 높은 영역을 따로 분류하여 치아경조직 결손, 치수보호, 아말감 수복, 주조 금속 수복, 치질과의 접착, 심미성수복재, 도재 수복, 그리고 치아변색 및 표백술로 나누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중 치질과의 접착 영역과 심미성 수복재 영역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논문의 주제가 재료의 성질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법랑질이나 상아질에 대한 접착(bonding)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치질과의 접착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복합레진이나 글래스아이오노머, 그리고 컴포머 등의 심미성 수복재의 재료 성질에 초점을 맞춘 논문의 경우에는 심미성 수복재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심미성 수복재중 도재(porcelain)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논문이 많아서 따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전체 273편의 논문 중 심미성 수복재 영역에 해당하는 논문이 37%를 차지하였고 치질과의 접착 영역이 28.2%를 차지하여 이 두 영역의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치질과의 접착 영역은 90년대 중반에 집중적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심미성수복재에 관한 논문은 90년대 초반에 많이 발표되다 90년대 중반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경향은 상아질접착제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가 1990년대 중후반이었던 것과 상통하는 결과로 유추되며, 90년대 말 이후 레진강화형 글래스아이오노머나 컴포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심미수복에 관한 관심이 더 커지면서 심미수복재 연구가 다시 많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말감 수복에 관한 논문은 90년대 전반기까지는 활발히 발표되었으나 이후 최근에는 거의 발표되고 있지 않으며 주조 금속 수복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재 수복에 관한 논문은 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관치료학 영역의 논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할 때 1996년에 대한근관치료학회에서 발간된 "근관치료학"의 각 장(chapter)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발표의 빈도가 높은 영역을 치수생물학, 근관성형, 근관세척 및 투약, 근관미생물학, 근관충전, 외상, 외과적 근관치료, 그리고 근관치료후 수복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논문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중 근관치료후 수복 영역의 경우에는 치과보존학 교과서에도 분류되어 있었으나 근관치료학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근관치료학 영역에 포함하였으며 치아표백술의 경우에는 근관치료학 영역에 포함할 수도 있지만 치과보존학 책에도 분류되어 있는바 근관치료학 영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방법으로 연구기간중에 발표된 근관치료학 영역의 논문 240편을 분류한 결과 치수생물학 영역이 24.6%로 가장 많았으며 근관성형, 근관치료

학에서의 미생물학 그리고 근관충전 영역의 논문이 비슷한 정도로 많이 발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관치료학 영역에서는 최근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 근관성형이나 충전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근관치료학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치수생물학이나 미생물학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도별 분석에서는 근관치료학 영역의 경우는 전체적인 경향이러기 보다는 각 연도마다 특징적으로 많이 발표되는 논문의 영역이 있었다. 1992년에는 치수생물학과 근관성형, 미생물학 그리고 근관충전 영역의 논문만이 발표되어 논문의 주제가 다소 편중된 경향을 보였으며 1995년에는 치수생물학과 미생물학에 관한 논문이 전체 논문의 53.8%를 차지해 기초 영역의 논문이 특히 많이 발표된 연도였으며, 1996년 그리고 1999년에는 치수생물학 영역의 논문이 특히 많이 발표되었으며 근관성형 영역의 논문이 꾸준히 많이 발표된 것은 해마다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나 근관충전 영역의 논문은 1997년에 발표된 61편의 논문중 1편만이 차지했던 것이 특징적이었다. 1998년의 경우에는 치수생물학 영역이 그해 해당 논문 26편중 2편에 불과했던 반면 근관충전 영역의 논문이 30.8%나 차지했으며, 1999년의 경우에는 치수생물학 영역의 논문이 특히 많이 발표되었고 2000년에는 근관성형 영역의 논문이 평균이하로 발표된 반면 근관충전 영역의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2001년의 경우에는 다양한 영역의 논문이 골고루 발표된 양상을 보였다. 근관치료학 영역에서 특징적인 것은 외상에 관한 논문이 9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발표되지 않다가 이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표된 논문의 주저자를 소속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서울대학교가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표된 연구논문의 주저자가 대학원생인 경우가 많은바 각 학교마다 대학원의 규모가 차이가 나고 학교별로 확보된 보존학교실의 전임 교수의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연구논문의 수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전국 11개 치과대학 이외의 기타에 소속된 연구자들의 논문 발표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저자의 소속별로 대한치과보존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들이 보존수복학과 근관치료학 영역이 비슷한 정도로 발표하였으나 몇몇 대학들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는 소속대학의 지도교수의 전공에 따라 발표된 연구논문들도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보존학의 균형있는 연구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전공의 교수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특징적인 경향은 치과대학이외 소속의 연구자에 의해 발표된 논문의 경우 근관치료학 영역의 논문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이었다.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해 보면 공동저자의 논문이 대부분이었는데 2인의 공동연구인 경우가 36.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인에 의한 연구가 34.9%, 4인에 의한 연구가 12.3%였으며 5인 이상인 경우도 10.1%나 차지했으며 단독연구인 경우도 33편으로 6.4%를 차지했다.

공동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단일 대학교내의 보존학교실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였으며 타 분야와의 합동연구에 의해 발표된 논문은 50편으로 전체의 9.7%에 불과했고 타 대학이나 병원과의 교류에 의한 연구도 33편으로 전체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타 전공이나 타 대학과의 교류에 의한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발표된 연구논문의 참고문헌 인용 실태를 보면 513편의 논문에서 총 21160편의 참고문헌이 인용되어 평균 41.2편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년도별 분석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용된 전체 참고문헌 중에서 국내문헌은 총 902종으로 전체의 4.3%에 그쳤고 국내문헌이 전혀 인용되지 않은 논문이 209편으로 전체 논문중 40.7%나 차지해 아직 국내문헌의 인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국내 보존학의 발전과 아울러 많은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어 있는 바 논문의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확립해서 국내 참고문헌의 인용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대한치과보존학회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로 격상되어 색인이 갖추어 진다면 더 많은 국내 논문의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대한치과보존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 영어논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추세로 보이는데 학회지에 최근 10년간 발표된 논문중 영어논문은 28편으로 전체 513편의 논문중 5.5%를 차지했는데 1992년, 1993년, 1994년 그리고 1997년에는 발표된 논문중 영어로 작성된 논문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나 1995년에 1편, 1996년에 2편이 발표된 이후 1998년에는 3편, 1999년에는 4편, 2000년에는 6편, 그리고 2001년에는 12편이나 발표되어 괄목할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대한치과보존학회지의 위상을 더 높이고 외국과의 학문적 교류의 증진을 위해서도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대한치과보존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치과보존학 분야의 최근 연구흐름에 관한 소기의 결과를 얻었으나, 국내 타 학술지나 국제학술지에도 보존학 관련 연구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대한치과보존학회지에 발표된 513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최근 치과보존학의 연구경향과 흐름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실행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논문의 종류별 분포에서 원저가 506편(98.6%), 종설이 3편(0.6%), 그리고 증례보고가 4편(0.8%)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 기간중에 발표된 논문들은 보존수복학 영역과 근관치료학 영역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발표되었다.
3. 보존수복학 영역의 논문중에서는 심미성수복재에 관한 논문과 치질과의 접착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관치료학 영역의 논문은 치수생물학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근관성형, 근관치료학에서의 미생물학 그리고 근관충전에 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논문의 주저자의 소속별 영역분포에서 대부분이 보존수복학과 근관치료학 영역의 논문이 비슷하게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대학의 경우도 있었으며 치과대학이외 소속의 경우에는 근관치료학 영역의 논문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발표된 논문의 저자수를 조사한 결과 2인인 경우가 36.3%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인인 경우가 34.9%를 차지하고 4인인 경우가 12.3%, 5인이상인 경우가 10.1%였으며 단독저자인 경우는 33편으로 6.4%를 차지하였다.
6. 보존학 이외의 타 전공과의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은 50편이 발표되었다.
7.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은 논문당 평균 41.2편이 인용되었으며 국내 참고문헌은 평균 1.8편이 인용되었으며 국내 참고문헌의 인용이 전혀없는 논문이 전체 논문중 40.7%를 차지하였다.
8. 발표된 293편의 논문중 영어논문은 28편으로 5.5%를 차지하였으며 해가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참고문헌

1. 양상국: 대한 비뇨기과 학회지 게재 논문의 연대별 통계분석, 건국의과학학술지 8:149, 1999.
2. 대한치과보존학회지 17(1), 1992.
3. 대한치과보존학회지 17(2), 1992.
4. 대한치과보존학회지 18(1), 1993.
5. 대한치과보존학회지 18(2), 1993.
6. 대한치과보존학회지 19(1), 1994.
7. 대한치과보존학회지 19(2), 1994.
8.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0(1), 1995.

9.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0(2), 1995.
10.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1(1), 1996.
11.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1(2), 1996.
12.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2(1), 1997.
13.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2(2), 1997.
14.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3(1), 1998.
15.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3(2), 1998.
16.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4(1), 1999.
17.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4(2), 1999.
18.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4(3), 1999.
19.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4(4), 1999.
20.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5(1), 2000.
21.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5(2), 2000.
22.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5(3), 2000.
23.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5(4), 2000.
24.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6(1), 2001.
25.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6(2), 2001.
26.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6(3), 2001.
27.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6(4), 2001.
28.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6(5), 2001.
29.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6(6), 2001.
30. 치과보존학, 신흥인테리어서널, 2001.
31. 근관치료학, 덴티북, 1996.